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24 일지암시교

차는 군자의 성품처럼 샷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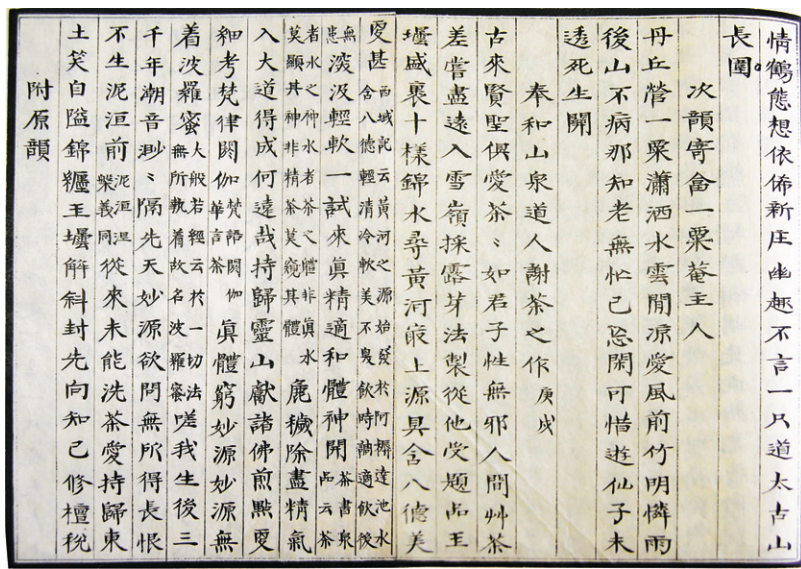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는 조선의 다도(茶道)를 재정립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지은 <중다송(東茶頌)>에는 차의 역사와 차 나무의 품종, 제다(製茶), 차를 끓이고 마시는 방법, 차의 생산지와 품질 등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 담겨있다. 그는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차를 만들어 불교적 '선미(禪味)'를 차에 담아내는 행선을 몸소 실천했다. 이러한 차 이론의 정립과 실천의 겸병은 당시 영락했던 차문화의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와 같은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자신의 차 이론을 공고히 했다. 추사 김정희의 동생 산천 김명희(金命喜, 1788-?)는 '초의차'를 받고 시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초의선사 역시 다음의 시를 지어 화답했다.

예부터 성현(聖賢)은 모두 차를 사랑했으니 차는 군자의 성품처럼 샷됨이 없어서라네.(중략) 맑고 가벼운 물 길러다가 (차를) 달이니 좋은 물과 차가 서로 어우러져 (차의) 신(神)과 체(體)가 열리네. 추함과 더러움을 다 없애야 (차의) 정기(精氣)가 드러나니 대도(大道)를 이룸이 어찌 멀다 하랴. 영산에 가지고가 부처님께 바치는데 차 달이는 법, 다시 (불가의) 법도를 상고하네. 알가(彌伽)(차)의 진체(眞體)에 오묘한 근원을 다하면 오묘한 근원은 집착이 없는 바라밀이라.(후략)

(역·박동춘)

한국의 산자수명(山紫水明)한 풍토성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함의된 우리의 차는 시원한 맛과 활활한 기운 속에 '투명함'과 '맑음'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제 시기에 만 차질을 올바르게 뒤어 보 관하고 좋은 물로 우려내어 '중정(中正)'을 잃지 않은 차는 다도의 극치에 이른다.



초의선사가 김명희에게 보낸 시, '일지암시교' 영인본.

이러한 차를 95℃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달이면 냉한 기운은 중화되고 오묘한 향과 함께 따뜻한 열감이 발끝까지 전해진다. 식기 전에 마시고 입안에 남은 후미(後味)를 즐기게 되는데, 이 때 소엽종을 쓰는 우리는 중국과는 달리 여러 번 우려내는 재탕법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잘 우려진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하고 상쾌해져 이내 맑은 정신에 이르르게 되는 것이다.

차를 만드는 법의 원론이 '중정(中正)'에 있다면 다도(茶道)를 사상적으로 표현한 말은 '전다삼매(煎茶三昧)'이다. '차를 통해 삼매의 경지로 들어간다'고 한 김정희의 표현은 차(茶)와 선(禪)의 경지가 둘이 아님(不二)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또한 한잔의 차로 고요한 선경(禪境)에 드는 경지이다. 결국 차는 청아한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지기(知己)'였으며, 이러한 정신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 몸과 마음이 열리고 비어진 찻잔에 향기가 담기듯 깨끗한 마음에 지혜가 담기는 것이다.

지난 6개월간 2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옛 그림을 통해 차를 사랑한 선인들의 삶을 소개했다. 예술작품을 통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차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고자 했으나, 해야 할 말들이 글이 미치지 못한 곳에 머문 듯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 동안 부족한 글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연재를 마친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21 미항사매화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다. 겨울이 깊어지는 만큼 봄 또한 다가오고 있었다. 봄은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그 기다림은 계절의 연속성 속에서 다른 계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는 다른 의미의 기다림이다. 다른 계절의 기다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습관적인 기다림이라면 봄에 대한 기다림은 당연히 올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급한 마음의 기다림이다. 달력에 표시된 입춘이란 두 글자는 조바심치며 참아온 기다림의

첫 번째 표시다.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꽃이 피는 완연한 봄이 아직 온 것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에 권태스러워진 마음 한 귀퉁이에는 이미 봄이 온 것이다. 이제 전 이른 봄에 서울에는 아직 피지 않은 봄꽃을 찍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땅끝 마을 미항사의 돌담 위로 이제 막 꽃잎을 틔운 매화를 담아왔다. 우리는 이토록 늘 애달프게 봄을 기다리고 있다.

옛 판화의 세계

민왕이 도를 묻다(閩王問道)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의존(義存) 스님이 민왕 지방에 근거해 나라를 일으킨 민왕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이다. 석의존 스님은 천주사람으로 민왕에 행각하다 설봉산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다. 민왕은 승단에 재를 올리거나 사찰을 짓게 되면 반드시 스님을 청해 물었던 신심 높은 왕이었다. 어느 날 민왕은 의존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지금 절을 짓고 복을 닦아 보시 하며 스님을 공양하고 악한 것을 막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의존 스님이 말했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 성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좌우함이 있는 마음일 뿐 모두가 윤회하는 일입니다. "어떤 과보를 얻게 됩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게 되고 복 받고 장수하는 과보를 얻게 됩니다." 왕이 말이 없자, 스님이 왕에게 말했다. "견성하면 그것이 부처입니다." "장차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모든 업장의 바다는 모두가 망상에서 생깁니다. 만약 참회하고 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컨대 실상을 알고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성불합니다." 이에 왕

이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생사의 큰일을 개시해 주십시오." 스님이 말했다. "진여의 불성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의 경전이 모두 왕의 본성 안에 스스로 구족돼 있습니다. 이는 또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꼭 스스로 자신이 구제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상대하여 구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부처가 되려거든 마땅히 스스로 제도해야 합니다. 만약 유일한 진여의 자성만 깨닫는다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도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오직 본성만을 비추어 보십시오. 만약 환하게 본성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달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복을 짓는 과보는 극락에 태어날 수 있으나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함을 일러 주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알고 스스로가 깨달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민왕문도(閩王問道).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성삼원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데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경인년 제 2차 선칠 용맹정진 (7일 용맹정진)

◆ 결재일 : 2010년 2월 21일 오후 7시

◆ 해재일 : 2010년 2월 28일 사시

대한불교 매월선칠수행도량 조계종 묘실상선원 042)585-0778 / 010-6555-6696

福 福 福 福 福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통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서울법당 : 02)742-0172 대구법당 : 053)425-3063
포항법당 : 054)261-2231 울산법당 : 052)211-216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전법당 : 042)862-5539